

1.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 ①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 ②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 ③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 ④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2.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한 것은?

- ① 새까맣다 - 싯퍼렇다 - 셋노랑다
- ② 시빨졌다 - 시허영다 - 싯누렇다
- ③ 새퍼렇다 - 새빨강다 - 셋노랑다
- ④ 시하얏다 - 시꺼멓다 - 싯누렇다

3. <보기>는 시의 일부분이다. 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한자어는?

<보기>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테니스에 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유에프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 중략 -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 ① 편견(偏見) ② 불화(不和)
- ③ 오해(誤解) ④ 독선(獨善)

4. 서로 의미가 유사한 속담과 한자성어를 짝지은 것이다. 관련이 없는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원님 덕에 나팔 분다 - 狐假虎威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晚時之歎
- ③ 언 발에 오줌 누기 - 雪上加霜
- ④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 目不識丁

5. <보기>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은?

<보기>

한글 중 초성자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로 구분된다. 기본자는 조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으로, 획을 더할 때마다 그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세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체자는 획을 더한 것은 가획자와 같지만 가획을 해도 소리의 세기가 세어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 ① ㄹ ② ㄷ
- ③ ㅂ ④ ㅊ

6. 외래어 표기 용례로 올바른 것은?

- ① dot - 닷트
- ② parka - 파카
- ③ flat - 플레트
- ④ chorus - 코루스

7. <보기>의 ㉠~㉣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다락골	㉡ 국망봉
㉢ 낭림산	㉣ 한라산

- ① ㉠ - Dalakgol
- ② ㉡ - Gukmangbong
- ③ ㉢ - Nangrimsan
- ④ ㉣ - Hallasan

8. <보기>는 황진이가 지은 시조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冬至入冬 지나긴 밤을 한 (㉠)를 버혀 내어
 (㉡)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췌리라.

- | | |
|------|----|
| ㉠ | ㉡ |
| ① 허리 | 春風 |
| ② 허리 | 秋風 |
| ③ 머리 | 春風 |
| ④ 머리 | 秋風 |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이 꺼져 간다.
- ② 그 사람은 잘 아는척한다.
- ③ 강물에 떠내려 가 버렸다.
- ④ 그가 올 듯도 하다.

10. 맞춤법 사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웃어른, 사흘날, 베갯잇
- ② 널리리, 남존녀비, 험택
- ③ 적잖은, 생각건대, 하마터면
- ④ 홀몸, 밋밋하다, 선율

17. <보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놓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 ① 물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주인공들은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다.
- ③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하는 매개체다.
- ④ 화투는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18.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는?

<보기>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현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 ① 십년 ㄱ온 칼이 갑리(匣裏)에 우노미라.
관산(關山)을 바라보며 새새로 문져 보니
장부(丈夫)의 위국공훈(爲國功勳)을 어니 새에 드리울고.
- ② 구곡(九曲)은 어드미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속에 못쳤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안이히고 불췌엿다 흐드라.
- ③ 강호(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힘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④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피 잇너.
녀든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

19.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쇠항아리’와 의미가 통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中 -

- ① 조국아/한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남의 발톱에 주어본 적/없었나니(「조국」 中)
- ② 아사달과 아사녀가/중립의 초레청 앞에 서서/부끄럼 빛내며/맞절할지니(「껍데기는 가라」 中)
- ③ 꽃피는 반도는/남에서 북쪽 끝까지/완충지대(「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中)
- ④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붉은 발병 났다커니/붉은 위독하다커니(「봄의 소식」 中)

20.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단, ‘:’은 장모음 표시임.)

- ① 비가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났다. - 물난리[물랄리]
- ② 그는 줄곧 신문만 읽고 있었다. - 신문[심문]
- ③ 겨울에는 보리를 밟는다. - 밟는다[밤:는다]
- ④ 날씨가 벌써 한여름과 같다. - 한여름[한녀름]